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19년 북미 건화물 보관업체 순위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세계경제포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톨킷 발표
2. UPS, CVS와 미국 내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작
3. 월마트, 2시간 배송 서비스 도입
4. 중국 샤오미, 인도에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시
5. 카고캐스트, RFID 스마트 물류 플랫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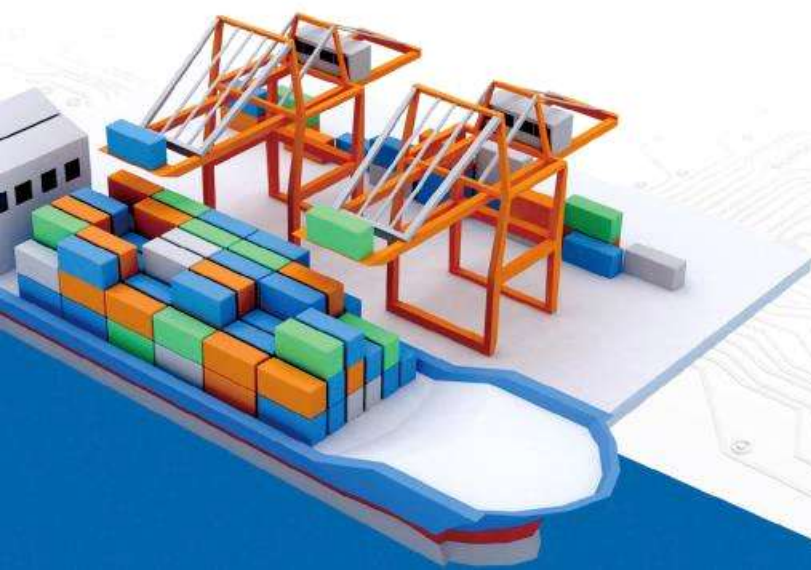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명사 스피치

“세계 최대 규모의 ‘알헤시라스호’는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 해운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재기할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2020. 5. 4.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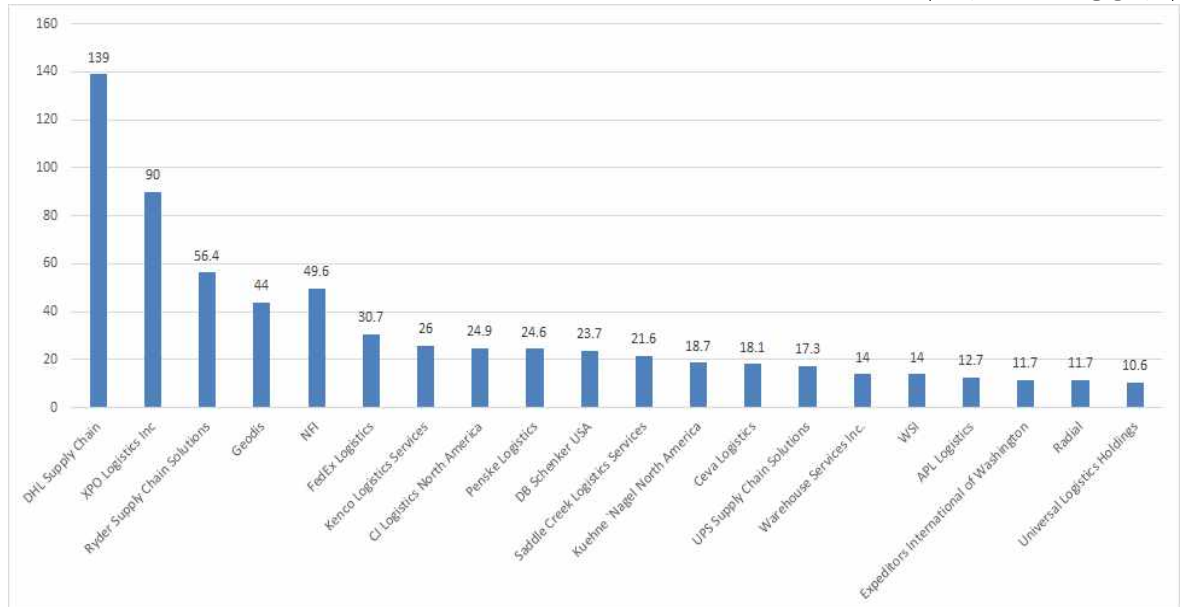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19년 북미 건화물 보관업체 순위

'19 북미 건화물 창고 면적 기준 보관업체 순위

(단위 : 100만 평방피트)



자료 : www.statista.com

- 위 통계는 2019년 기준 북미 메이저 건화물 물류창고 기업 순위를 나타냄
- 건화물 창고 면적에 따른 순위이며, 단위는 100만 평방피트임
- 2019년 북미시장 건화물 창고의 면적에 따른 기업 순위는 DHL Supply Chain, XPO Logistics inc, Ryder Supply Chain Solutions 순임
- DHL은 건화물 보관업 분야 1위를 차지하며, 북미 물류창고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 DHL은 북미 보관업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화물 기준 순위도 동일함
- 139¹⁾를 차지하며, 2위 업체인 XPO Logistics Inc의 1.5배 면적의 건화물 창고를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 CJ대한통운 북미법인(CJ Logistics North America)의 경우 북미 건화물 보관업 시장에서 8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 5. 4)

류진아 연구원

051-797-4788, jaryu@kmi.re.kr

1) 100만 평방 피트 기준

물류정책·산업동향

세계경제포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툴킷 발표

- 지난 4월 29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툴킷을 발표함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공급업체들의 재무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급사슬의 역량이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
 - 지난 4월 29일 세계경제포럼은 공급사슬의 회복력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블록체인 적용 툴킷을 발표함
 - 이들은 공급사슬 회복력의 핵심인 신뢰성, 투명성 그리고 통합성을 블록체인 기술로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둠
 - 또한 블록체인 기술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 중소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끔 설계함
 - 이 툴킷은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상호 운용성, 생태계, 개인정보 처리 등 공급사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4개의 모듈을 담고 있음

블록체인 적용 툴킷 모듈



자료 : www.widgets.weforum.org

- 우리나라도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공급사슬의 역량 강화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블록체인 적용 툴킷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공급사슬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기관이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우리나라도 공급사슬이 직면한 현재 문제를 타개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툴킷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www.weforum.org/press/2020/04/blockchain-to-tackle-supply-chain-failures-exposed-by-covid-19-and-boost-economic-recovery/(검색일: 2020.4.29)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

UPS, CVS와 미국 내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작

- UPS의 자회사인 UPS Flight Forward는 미국 최대 은퇴자 커뮤니티인 플로리다주 더빌리지(The Villages)의 주민들에게 CVS의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달할 예정임
 - 미연방 항공청의 파트 107 규정에 의해 2020년 5월 초 시작되는 동 서비스에서는 Matternet사의 M2 드론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라고 함
 -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시간에 민감한 의약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특히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영웅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함
 - UPS와 CVS는 작년에 드론배송 공동연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미 작년 1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캐리에서 첫 번째 의약품 전달을 성공적으로 마침
- UPS의 최고전략책임자인 스캇 프라이스는 CVS가 대규모 은퇴자 커뮤니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UPS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드론 배송과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의료인들과 고객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CVS의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인 존 로버츠는 기존의 '매장 내 픽업', '무료배송', '드라이브스루 픽업'과 함께 드론 배송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방안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함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검색일: 2020.5.4.)

■ 참고자료 : www.supplychain247.com(검색일: 2020.5.4.)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월마트, 2시간 배송 서비스 도입

- 월마트는 온라인 주문 품목을 2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배달하는 특급 배송 서비스를 도입함
 - 코로나19의 발생 이후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고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2시간 이내로 배달을 완료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함
 - 4월 중순 미국 내 10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5월 초에 1,000개 매장으로 확대하고, 5월 중순에는 2,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 최소 30달러 이상의 주문에만 적용하며, 10달러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함
 - 식료품, 일용품, 장난감 및 전자제품 등 16만 개 이상의 품목에 적용
- 미국 소매업체들은 배송 속도를 높이는 것을 경쟁 우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로 1일 배송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나우로 2시간 배송을 미국 일부 지역에 시행 중임
 - 월마트는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해 특급 배송 서비스를 준비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빠른 배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정 시기보다 앞당겨서 서비스를 시행함
 - 향후 더 많은 소매업체들이 특급 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전망이다
- 매장 중심의 전자 상거래 모델이 월마트 특급 배송 서비스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비해, 월마트는 미국 내 약 5,4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음
 - 월마트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배송 파트너를 활용하여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매장에 확보된 재고를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가까운 위치에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배송 서비스가 강점을 가질 수 있어, 월마트의 특급 배송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ve.com(검색일: 202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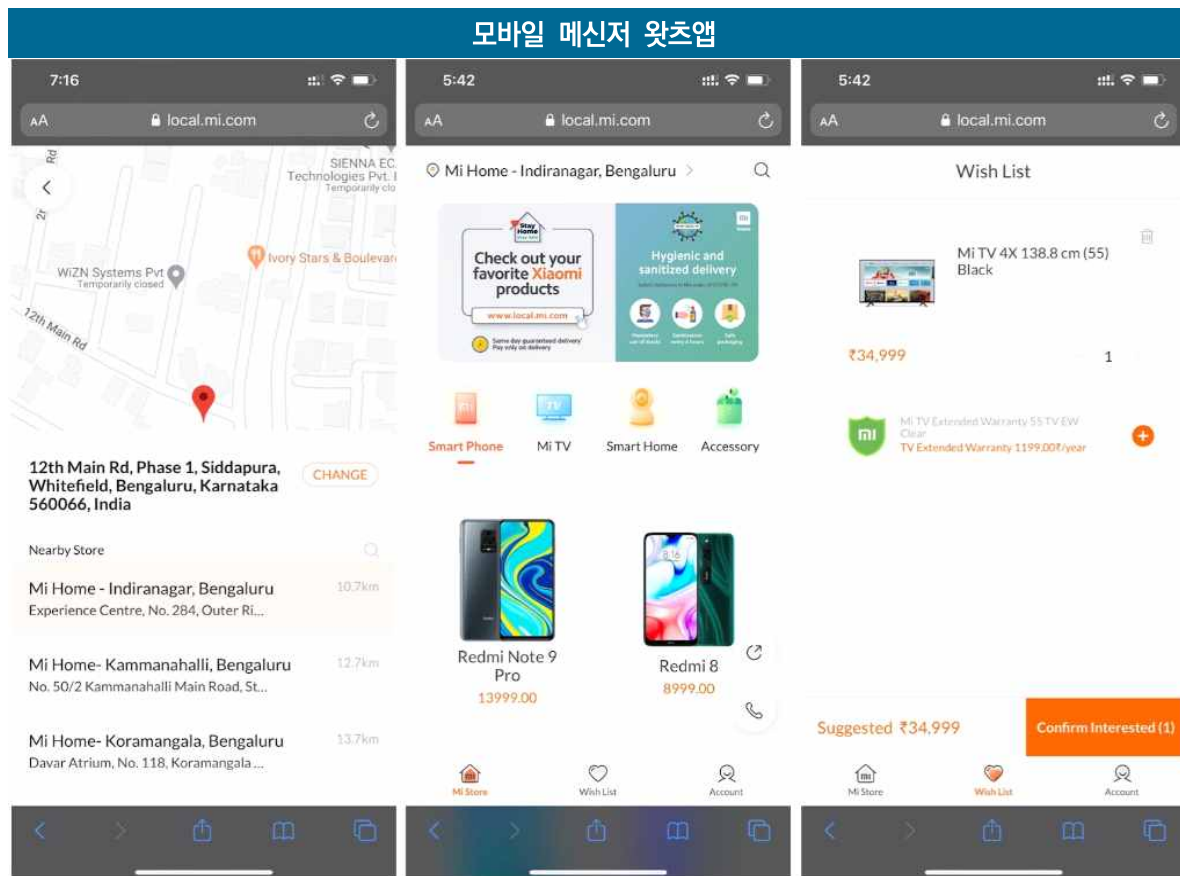
www.corporate.walmart.com/newsroom(검색일: 2020.4.30)

김성기 전문연구원

051-797-4688, skkim@kmi.re.kr

중국 샤오미, 인도에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시

- 중국의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샤오미가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Mi Commerce를 출시함
 -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가장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샤오미 혹은 샤오미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배송을 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O2O)임
 - 스마트폰, TV, 전자 램프 등을 포함한 각종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현재 인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Mi Commerce는 소비자가 왓츠앱(WhatsApp) 앱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면 근처 매장에서 전화로 주문 내역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있음
 - 결제는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후에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 <https://techcrunch.com/2020/05/05/xiaomi-mi-commerce-india/2020/05/05/xiaomi-mi-commerce-india/>

-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프라인 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 플랫폼을 전환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3월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시작으로 모든 매장을 폐쇄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식료품 주문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바 있음



- 샤오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언급함
 -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4월 한 달간 스마트폰이 전혀 판매되지 않음
 -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온 만큼 이런 수치는 올해 자국의 스마트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샤오미 관계자는 인도 내 스마트폰 제조공장 폐쇄 조치 이후에도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해 인도 정부와 꾸준히 협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약 4개월 동안 수요를 충족시킬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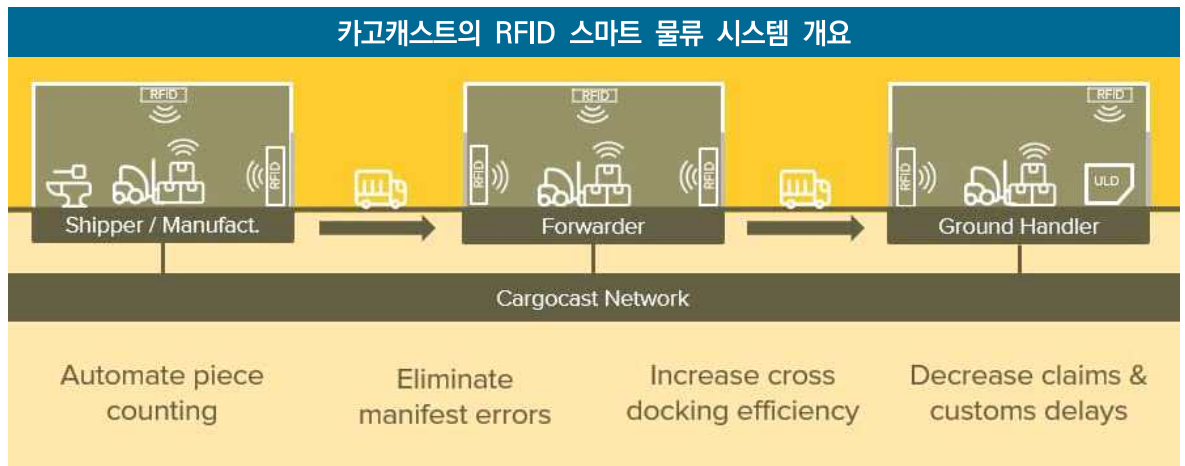
■ 참고자료 : <https://techcrunch.com>(검색일: 2020.5.5)

신수용 부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카고캐스트, RFID 스마트 물류 플랫폼 출시

- 카고캐스트는 창고 운영 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출시함
 - 카고캐스트는 최신 RFID 기술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및 프로세스를 결합함으로써 운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출시함
 - 동 플랫폼은 RF컨트롤* 기술을 이용해서 화물 운송업체, 3PL, 제조업체 및 지상 처리 업체 등을 위한 공급망 자동화 플랫폼임
 - * 무선주파수(RF)를 이용하여 창고의 상황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기술
-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이용한 창고 운영 자동화는 정확성 향상을 통한 업무 극대화가 가능함
 - 카고캐스트의 단 디파우스는 천장에 매달린 RF CONTROLS사의 CS 스마트 안테나*를 통해 창고 내 화물, 지게차, 직원의 위치를 항상 확인할 수 있고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통합하여 계산 자동화 및 조정을 통해 크로스도킹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 배터리가 없는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사물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안테나
 - 또한 CS 스마트 안테나를 천장에서 10 ~ 50피트 사이 설치하여 창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창고 운영 자동화는 창고 내 작업의 정확성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카고캐스트는 창고 운영 자동화를 통해 적하목록(M/F, Manifest) 관련 오류, 클레임, 위약금 99% 감소, 피킹·크로스 도킹 효율 50% 증가, 로딩 도크 용량 10% 증가 등을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함



자료 : www.supplychaindigital.com

■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gital.com(검색일: 2020.4.17).

안승현 전문연구원

051-797-4693, shan@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수정공고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20.2.24 시행)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현 행	수 정
접수 기간	○ 2020.2.24.(월) ~ 2020.4.3.(금) 18:00까지	○ 2020.2.24.(월) ~ 2020.5.28.(목) 18:00까지

2020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5. 28(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